

韓 총리 유임, 장관 3~4명 바꿀 듯

이명박 대통령이 첫 개각을 앞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가운데 개각 인선이 이르면 7월 7일 발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월 7일 첫 주말인 이날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청와대에서 일본 도야코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 관련 내부 보고를 받고 개각 인선을 마무리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개각 문제를 찬찬히 챙긴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면서 "이미 개각 대상과 후임자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각 시기에 대해 "민주당의 국회 등원 등 국회 상황이 관건"이라며 "그러나 이 대통령이 오는 8일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개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첫 개각 인선 놓고 막판 고심

정운천·김성이 교체 확실... 오늘 발표 가능성

고 전했다. 때문에 여권 내부에선 이르면 7일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이 6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면 국회 등원을 통한 본격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7일 중에 개각을 단행해 등원을 유도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민주당도 새로운 선장이 선출된 만큼 등원을 거부하고 선택할 정치적 카드가 많지 않음을 노린 것이다. 이 경우 정국은 민주당 지도부 선출→개각→인사청문회 순으로 빠르게 여의

도 중심으로 순회하게 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일단 민주당이 국회에 등원하고 개각이 단행되면 그림이 좋은 것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등원 결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7일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이란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각 폭과 관련해서 이미 한승수 총리가 유임되고, 장관 3~4명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체 대상으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경질이 확실한 가운데, 김도연 교

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면 개각은 소폭에서 중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일단 유임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관측이다.

농수산식품부 장관 후임으로는 비(非)영남권 인사로 농림부 차관을 지내고 농업 정책에 정통한 이명수 전 덴마크 대사과 홍문표 전 의원, 이 대통령의 농어업 부문 공약을 총괄한 윤석원 중앙대 교수 등이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는 이경호, 문창진 전 복지차관과 신상진 의원, 고정화 전 의원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는 황우여, 이근현 의원과 안병만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장, 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원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에 하나, 충청에 하나씩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호남 몫 최고위원 배려"

박재순 전남도당 위원장 유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6일 '호남'과 충청에 하나씩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충청과 호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호남 하나, 충청 하나

는 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내 분란이 더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몫 최고위원으로는 박재순 전남도당 위원장이 유력하다.

박 대표는 또 친박(親朴: 친 박근혜) 복당 문제와 관련, "더 이상 시가엔 끝 문제가 아니고 신속히 해결해

야 한다"면서 "아직 자세한 보고를 못 들었지만 일괄 복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당 심사 일정을 앞당길 것 이냐'는 질문에 "좀 강하게 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이미 당에서 원칙이 결정된 것을 기반으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내 의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홍사덕 의원의 복당 여부와 관련, "빨리 심사에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서구의회, 출발부터 빠격

강은미 의원 "부적격자 의장단 포함"

광주시 서구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 출범 초부터 빠격거리고 있다.

강은미 서구의회 의원(민주노동당·서구 라)은 지난 4일 열린 제 17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적격한 처신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의장단에 선출된 의원들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구의회는 그동안 일부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무리한 해외연수로 도마에 오르는 등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약점과 문제점을 가진 의장단으로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부적격 의원들이 의장단에 뽑힌 것은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했기 때문"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의장단 선거를 교향 선출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임 의장단 가운데 김희주 부의장은 알선수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기획총무위원장에 선출된 김복일 의원은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신임 의장단의 적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김 부의장은 "유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재판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장단 구성에서 배제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신임 의장단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서구, 북구, 광산구 등 4개 기초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고, 남구의회는 7일 의장단을 선출한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靑-광우병 대책회의 '물밑접촉'

재협상 등 5대 요구사항 전달 무산

축분집회를 이끌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청와대가 물밑접촉을 벌인 사실이 확인돼 배경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대책회의에 따르면 대책회의는 5일 저녁 축분집회 참여자들의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 담당자에게 전달하려다가 무산됐다. 대책회의는 이와 관련, "청와대 행정규정무수칙을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청와대 측에서 행정실에 접수시키고 가라고 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수용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요구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박석은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등 대표단 10여명은 당일 대책회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와대를 방문기로 하고 청와대 측과 약속까지 잡았으나 담당자가 갑자기 나오지 않겠다고 전해와 제의를 거절할 것으로 판단해 요구사항의 전달을 취소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쪽에서 결정이 반박된 모양"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여전히 소통할 뜻이 없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함평군의회 의장 조용무 의원

함평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조용무(62) 의원이 선출됐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임시회에서 재직의원 7

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다르다. 이 관계자는 먼저 "대책회의 쪽에서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하고 그 전에 위에서 5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제안해 우리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며 이번 접촉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대책회의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시위중단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모양을 갖춰서 받을 필요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저쪽에서도 오지 않겠다고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이 '건문 전달 무산'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전혀 '등돌리고 있던' 양 측이 접촉에 나섰다는 점에서 비사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대책회의 측이 5대 요구사항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 ▲미국산 소고기 전량 회수 및 유통 중단 ▲경철청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및 구속, 수배 조치 해제 ▲의료민영화, 방송장악유도, 교육의 공공성 포기, 한반도 대운하, 물·공기업 민영화, 고관을 정책 중단 ▲이명박 대통령 연방 및 공개토론회 개최 등이었다. /연합뉴스



명중 4표를 얻어 3표를 획득한 김영중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뽑혔다. 부의장에는 이동운(56)의원이 당선됐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호남 출신 與의원 릴레이 인터뷰

보성 출신 서울 강북갑 정양석 의원

"호남 어려움, 당에 충실히 전달할 터 믿음 갖고 이명박 정부 도와 줬으면"

"호남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호남에서도 믿음을 갖고 이명박 정권이 잘 되도록 도와줬으면 합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전남 대 출신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과 호남이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 의원은 또 "현재 호남지역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여러 영역에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나주혁신도시 시 사업,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J프로젝트, IT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 적극 도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보성 출신의 정 의원은 보성 배교남 초등학교와 광주 살레시 오 중·고교를 거쳐 전남대를 졸업한 그야말로 정통 '호남인'. 지난 1984년 민정당 중앙당 사무처 공채 5기로 정치에 입문, 88년까지 전남도당에서 근무하며 12~13대 총선 치렀다. 그는 이후 상경계 중앙당에서 근무하며 정치적 비전을 그려왔다. 정 의원은 "어머니와 동생이 광주에 거주한다"며 "요즘도 매일 같이 전화로 안부를 물어오는 지인과 친구들이 많아 호남은 내게 늘 정겨운 고향이다"고 말했다.

약력 ▲1958년 보성 출생 ▲전남대 물리학과 졸업 ▲제16대 대통령선거 유세기획단장 ▲한나라당 기획조정국장, 수석 부대변인 ▲17대 대통령선거 유세지원단 부단장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Tour (롯데관광)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various international destinations like China, Japan, Korea, and Europ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offers.